

#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기드온의  
작은 군사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Alastair Paterson  
각색: Ruth Klassen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Canada

©2022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잊고 지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까이  
있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곡식과  
토지 소산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살아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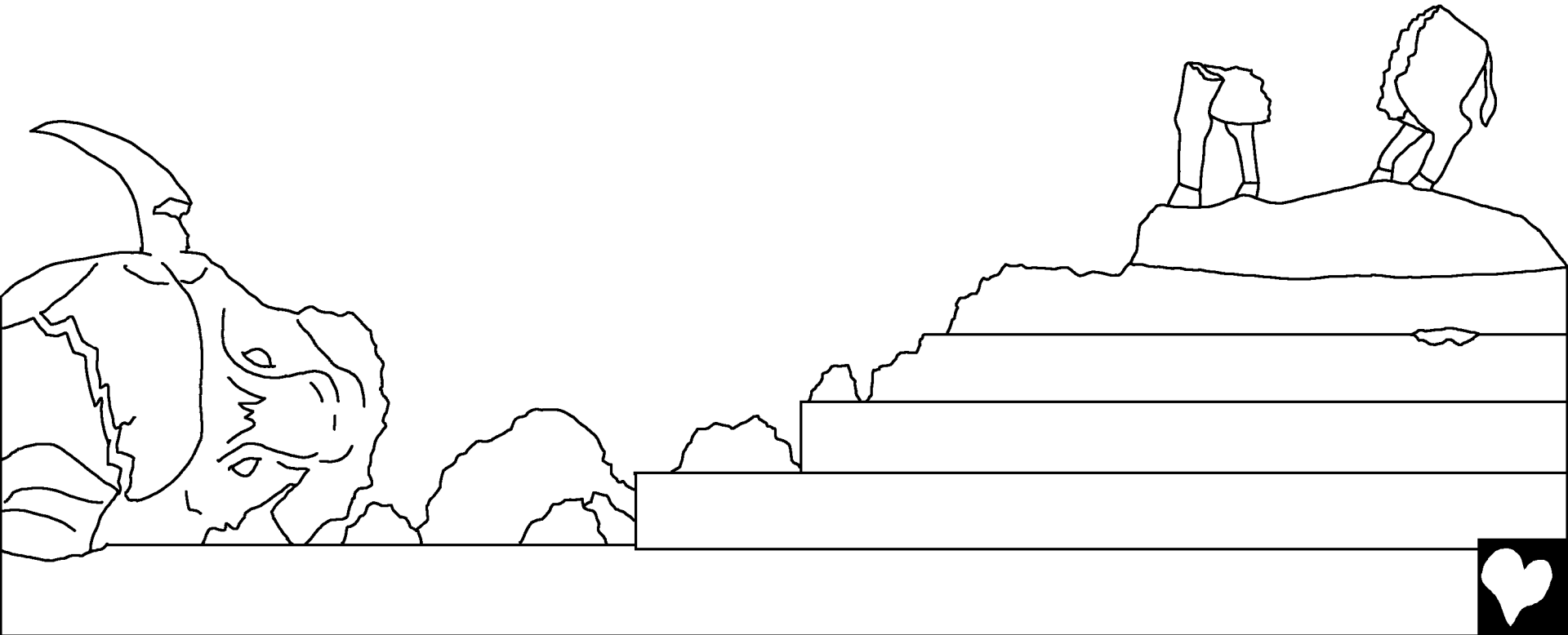


한 이스라엘사람 기드온은 밀을  
자라게할 비밀 장소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거대한 나무 아래 숨겨진  
포도주 틀을 이용해 곡식을  
타작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곳을 몰랐다-하지만  
하나님은 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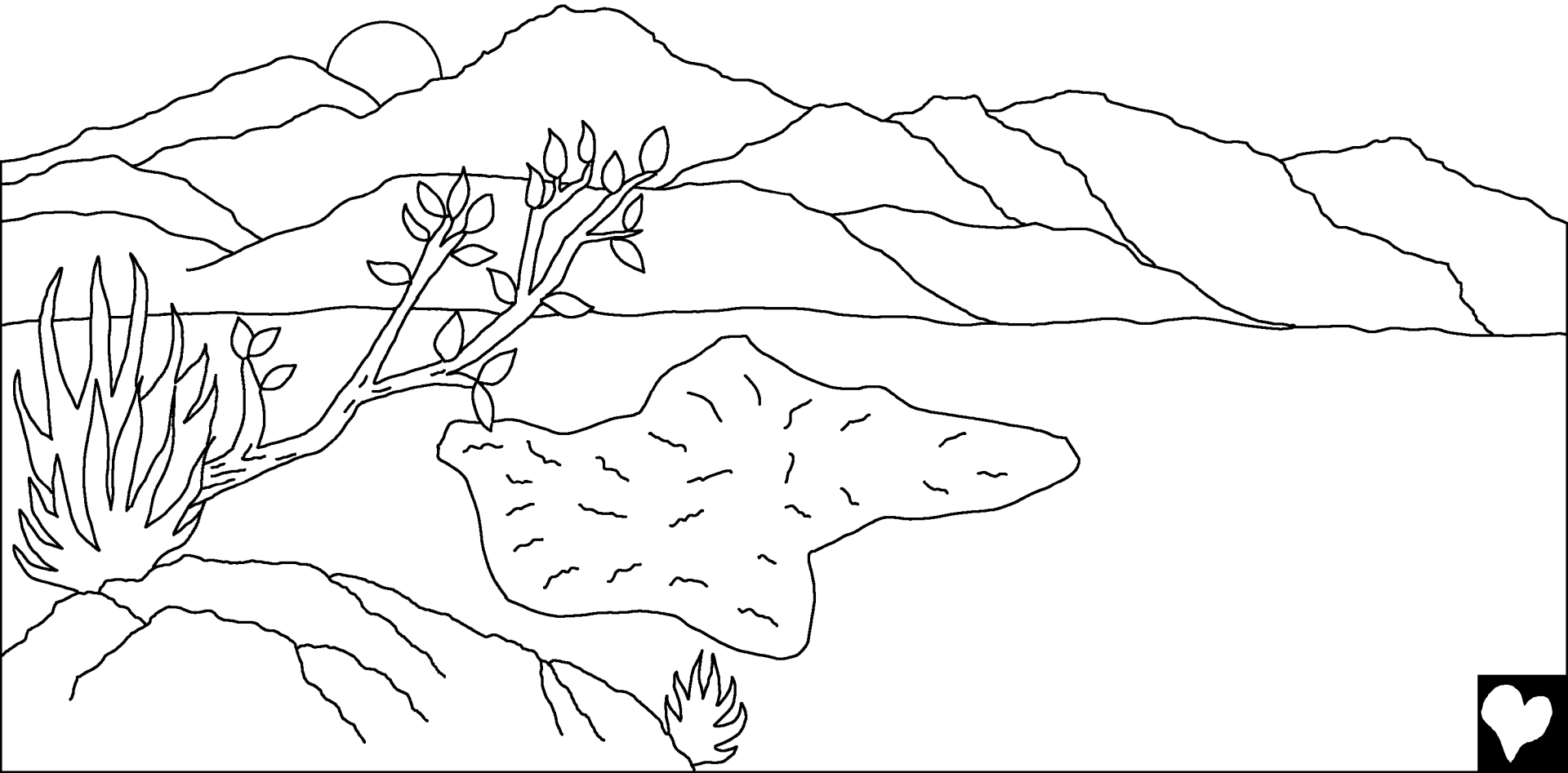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기드온을  
위해 메시지와 함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드온이 그의 아버지의 바알 단을 파괴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다.  
기드온은 그를 죽일 그의 주민들을 두려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행했다.



하나님은 또한 기드온이 사악한 미디안 사람들을 대항할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기를 원하셨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웠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특별한 표징을  
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양피의 양모를 마당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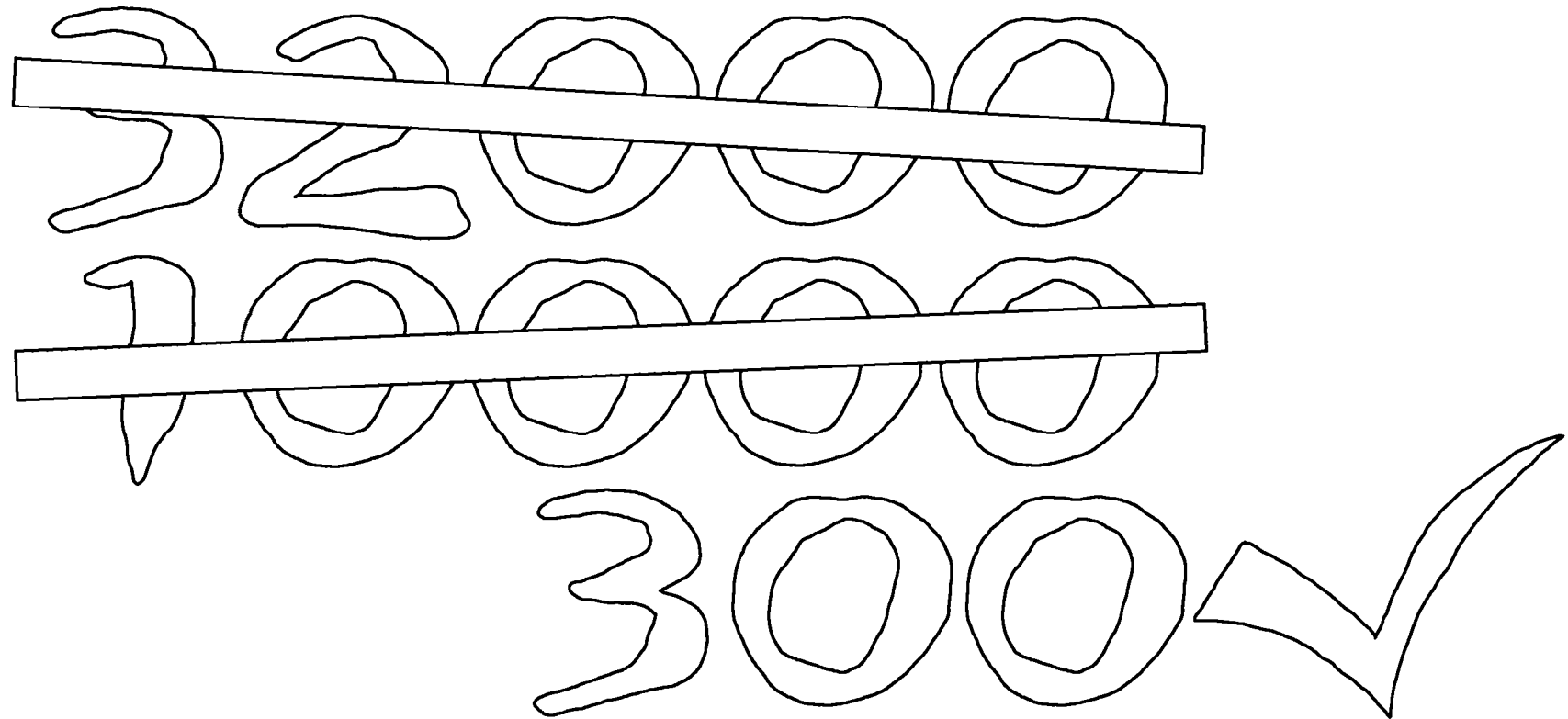
“만약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기드온이 기도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아침에, 땅은 마랐고 하지만 양털은 흠뻑 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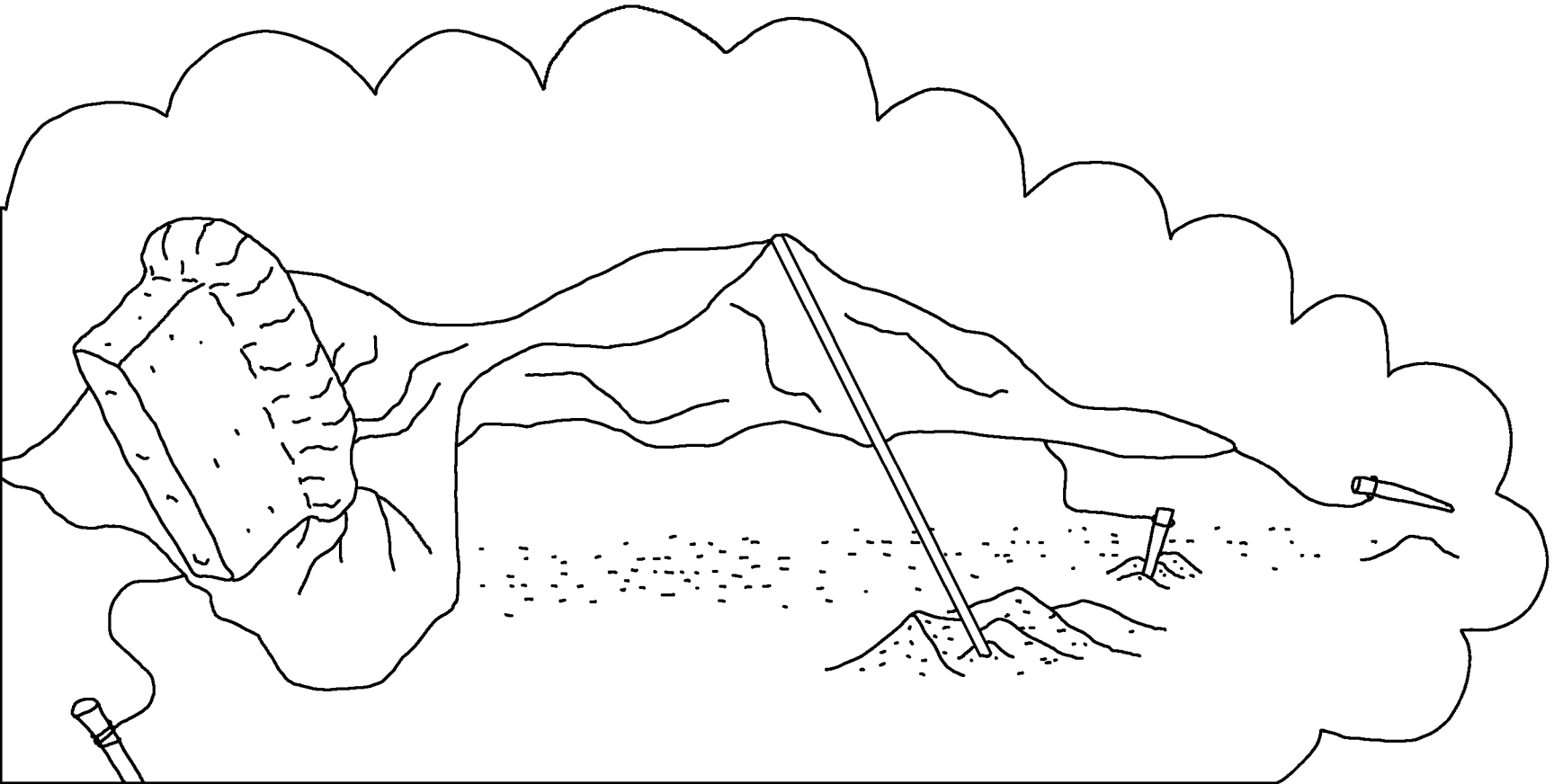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께서 땅에 이슬을 내리시고 하지만 양털에는 내리시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 땅은 흠뻑 젖었고 하지만 양털은 말라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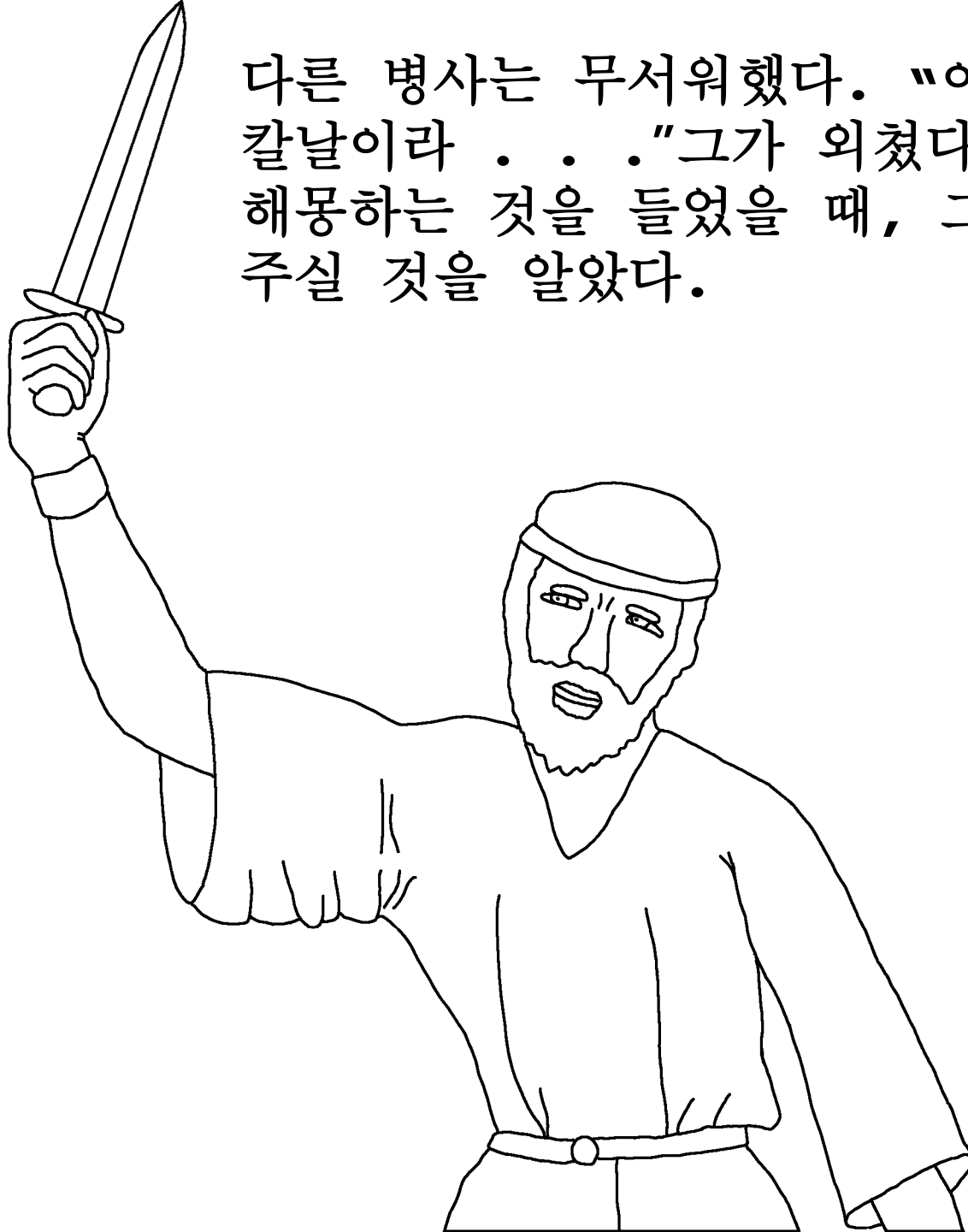
기드온은 32,000의 군사로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오직 300명으로 자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손으로 나를 살렸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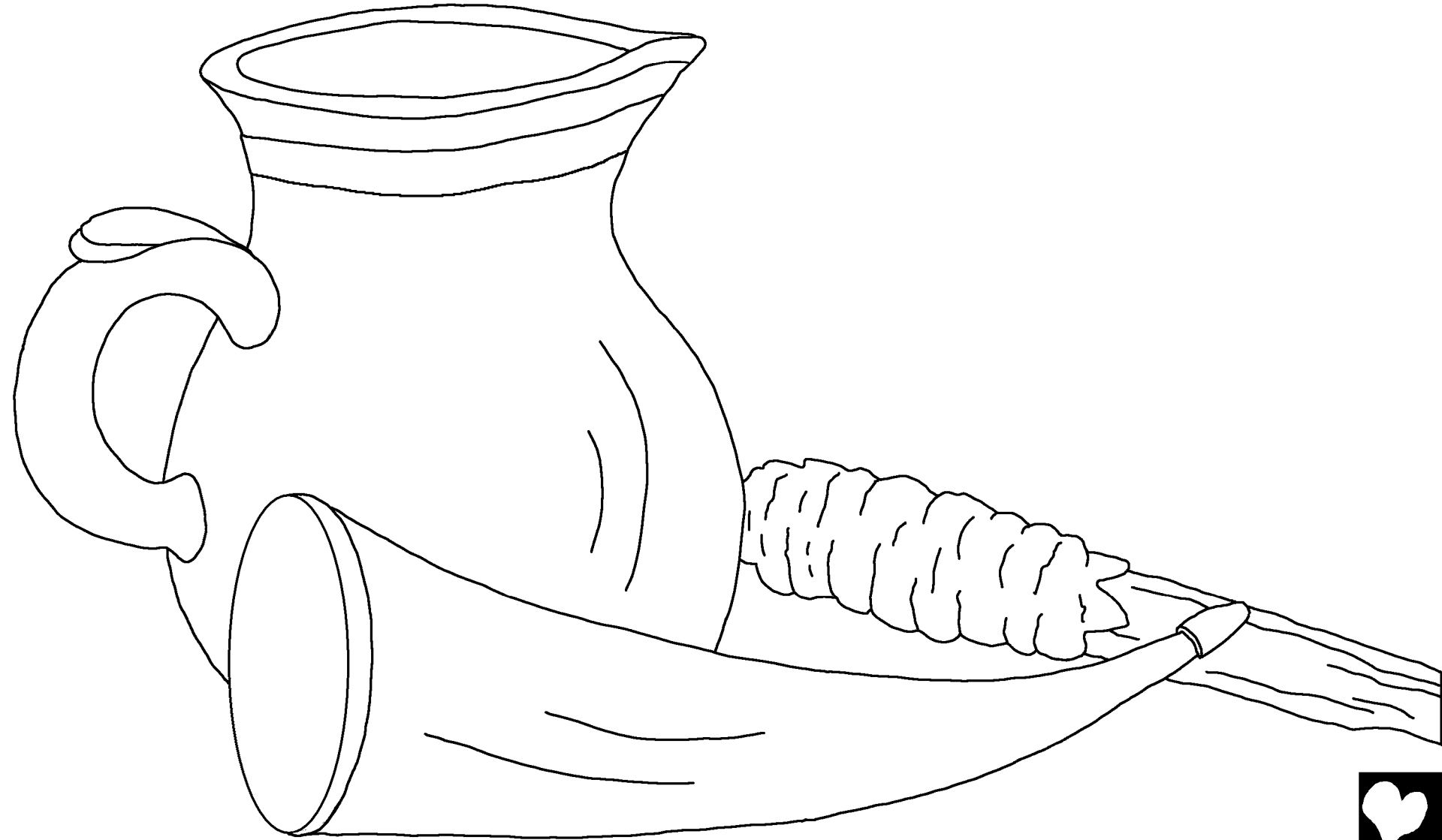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여전히 두려워함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한 미디안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이상한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몰래 듣게 하셨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곧 쓰러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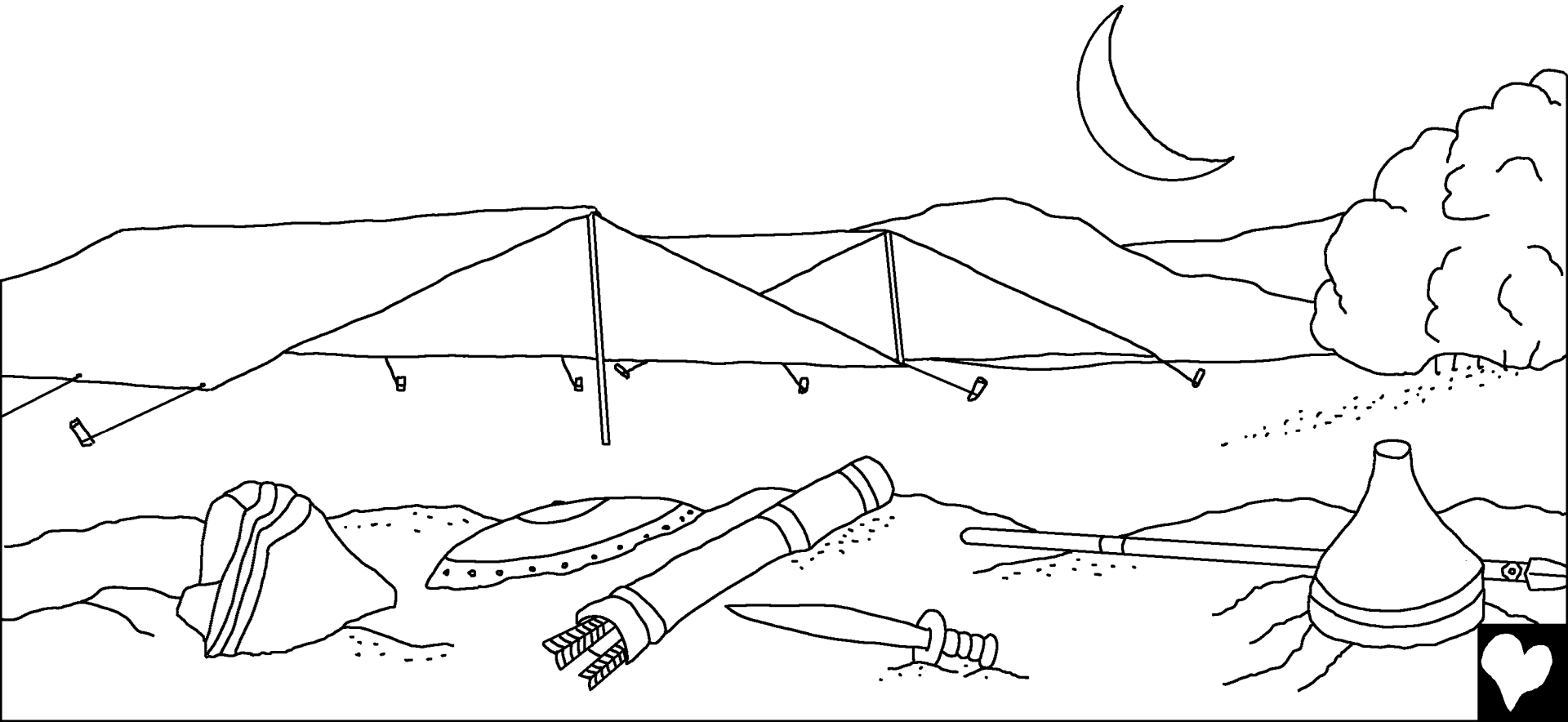
다른 병사는 무서워했다. “이 꿈은. . . 기드온의 칼날이라 . . .” 그가 외쳤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알았다.



기드온은 밤에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각 병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함께 그 안의 횃불을 주었다. 그들은 미디안 군대를 둘러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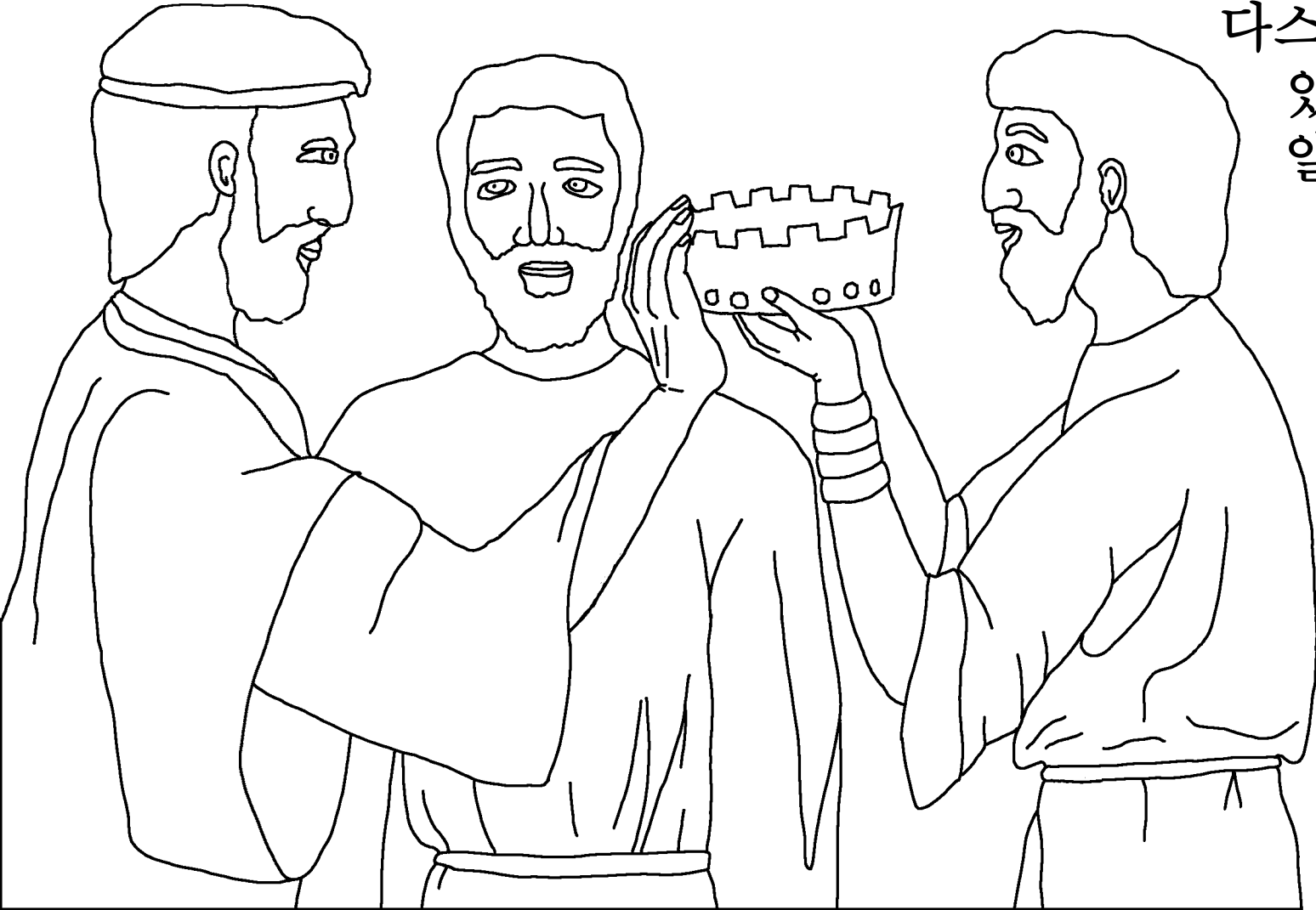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그들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비추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무슨 소동이야! 겁에 질린 미디안 병사들은 일어나  
도망쳤다.



큰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부탁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들의 삶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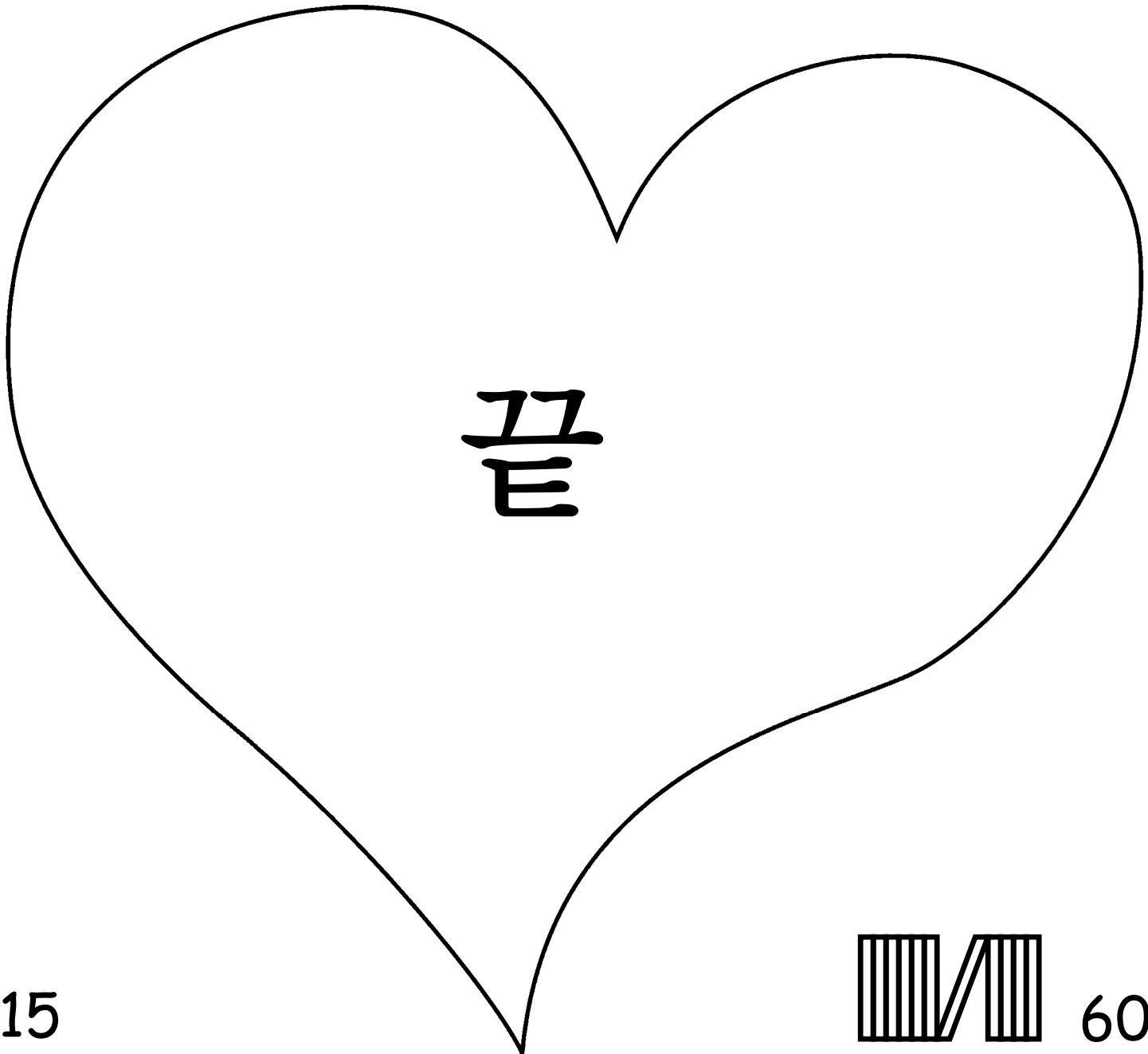
다스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 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15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